

신문왕[神文王] 통일신라를 완성하다

미상 ~ 692년(신문왕 12)



경주 신문왕릉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신문왕(神文王, ?~692)은 신라 제31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681년~692년이다. 그는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왕(文武王, 재위 661~681)의 뒤를 이어 즉위해, 진골귀족 세력을 제압하여 왕권 강화를 이룩하는 한편, 여러 제도를 완비하여 신라 중대(中代) 강력한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한 왕으로 평가받는다.

2 가계와 생애

신문왕은 문무왕의 장남으로 이름은 김정명(金政明 혹은 金明之)이고 자(字)는 일초(日韶)이며, 어머니는 자의왕후(慈儀王后 혹은 慈義王后)이다. 그는 665년(문무왕 5)에 태자로 책봉되어, 일찍부터 왕위계승권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681년 부왕이 사망하자 뒤를 이어 즉위했다.

관련사료

원래 태자로 있을 때 소판(蘇判) 김흠돌(金欽突)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신문왕이 즉위한 직후 일어난 김흠돌의 반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녀를 쫓아내고, 683년(신문왕 3) 일길찬(一吉澹) 김흠운(金欽運)의 딸 신목왕후(神穆王后)를 왕비로 맞아들였다. 687년(신문왕 7) 2월 장남이 태어났는데, 신문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효소왕(孝昭王, 재위 692~712)이다. 그 외에 성덕왕(聖德王, 재위 712~737), 김근질(金訢質), 김사종(金嗣宗) 등의 아들이 있었다. 또 『삼국유사(三國遺事)』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 등에 보이는 보천(寶川) 일명 보질도(寶叱徒)도 신문왕의 아들로 보기도 한다. 보통 이 아들들은 모두 신목왕후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보지만, 그들 중 일부는 쫓겨난 김흠돌의 딸이 어머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재위 12년간 신라를 잘 다스리다가 692년 7월에 사망하였다. 시호(諡號)를 신문으로 하고, 낭산(狼山) 동쪽에 왕릉을 만들어 모셨다고 하는데, [관련사료](#) 현재 사적 제181호인 경주 신문왕릉(慶州 神文王陵)으로 지정하고 있다.

3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통일신라 중대 왕권을 완성하다

고려시대 편찬된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재위 654~661)부터 해공왕(海公王, 재위 765~798)까지 태종무열왕 지계가 왕위를 계승한 시기를 중대(中代)라 불러는데